이기는 삶

행 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열 배나 되는 적과 싸우게 되었다. 싸움터로 가던 도중 대왕은 작은 사원에 들러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장수들과 병사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왕은 손에 동전 하나를 들고 말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쳤다. 이 기도는 틀림없이 영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동전을 던져 영험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이 동전을 공중에 던져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대왕은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하늘높이 던졌다. 모두 숨을 죽이고 동전을 주시하였다. 군사들이 떨어진 동전을 보니 동전은 앞면이 위로 올라와 있었다.

"앞면이다! 우리가 이긴다!" 기쁜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단번에 올라갔다. 병사들은 용기백배하여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으로 물러섬이 없이 싸웠다. 그래서 그들은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말했다.

"운명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가 이기다니요. 이건 기적입니다. 저희가 열 배나 되는 적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

"그럴까?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이었는 걸! 나는 그저 패배 의식에 젖어있는 병사들의 두려움을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으로 바꾸어 놓고 싶었을 뿐이라네."

왜 알렉산더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운이 되풀이되는지를 연구한 결과 운 좋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확실성을 즐긴다는 점이다. 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항상 확실한 것만 찾고 불확실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데 비해 운 좋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더 많이 관여했다.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는 홈런을 칠 수 없고 낚싯줄을 물에 드리우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시도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행운은 용기를 가지고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과학적인 발명이나 발견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우연한 기회는 평소 자질을 갖춘 사람,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게으른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란 없다. 언뜻 보기에는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필연적인 결과이다.

성공을 향해 걸어가자면 많은 역경과 난관이 앞을 막는다.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역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공은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연한 기회를 맞이하는 행운도 없을 것이다. 우연한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ecret of salvation?

구원의 비밀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 The secret of salvation is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John 3:5).

만약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 Unless humans become God, they cannot gain salvation.

마귀의 영적 무덤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 Without getting out of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and becoming God again, no one can obtain salvation.

하나님이 다시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귀'와 '나라는 의식'을 이겨야만 합니다.
▶ To become God again, humans must overcome 'Satan' and 'self-awareness'.

구원의 목적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 The subject of salvation is not "I" but 'God'.

'나'는 죄인이며 마귀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I" can not enter God's kingdom because "I" am a sinner and Satan.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예레미아 10장 10절)
▶ Only God can provide salvation and everlasting life (Jeremiah 10:10)*

by Alice

건강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의 흐름은 항상 파괴와 멸망, 혼란과 무질서 쪽으로 일방통행 하는 것 같지만, 베일에 감추어진 숨은 원리와 법칙을 알고 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 말은 모든 것을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앞길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은 피가 탁해지는 마음과 생활습관으로 획일화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피가 맑고 깨끗해져 젊음과 회춘과 불로장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혁명적 대전환점에 와 있다. 오늘날에야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안겨주게 되었다. 불로장생의 핵심 중의 핵심, 피가 맑아져서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희망을 크게 갖는 마음이다.

"희망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다"는 말은, 고등한 생명체가 되는 인간에게는 수명(壽命)과 곧 직결되는 마음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또한 극한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원기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삶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삶의 희망이 없으면 얼마 못 가 시들해서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기왕이면 더 큰 희망을 품고 살면, 더 큰 힘이 솟아나고 더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큰 희망은 큰 저력을 이끌어낸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이러한 사실에 크게 공감을 한다.

이 세상에 희망 희망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불로장생의 희망을 갖고, 그것의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다.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 없어진다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살고자 하는 희망이 오늘을 이룩했다.

둘째는 생명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세계 유수한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민족은 없다고들 한다. 외세의 침략을 900여 회 이상을 받고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민족성만으로도 과히 '생명존중사상'이 골수에 사무친 천손민족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닐 것이다. 신은 생명의 본체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인의 생명존중 사상은 지구에서 파멸의 위기로부터 구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세태에서는 그런 정신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다리 뻗고 아직 살 만하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세계적으로도 정이 많고 순결한 동방예의지국의 정신을 소유한 민족으로 통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선(善) 중에 최고의 선이고, 의(義) 중에 최고의 의가 바로 생명존중사상이다.

셋째는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승리라는 것은 스포츠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라는 말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 속에 요동치는 감정상태에서 항상 선이 악을 이기고, 합리적 이성이 독선적 욕심에 의한 감정을 이기고, 양심이 비양심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바른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마음,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 양심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욕심에 속한 마음이 있다.

대개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비양심에 지는 생활에 익숙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기를 펴지 못한 까닭에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사실, 진짜 양심대로 살면 하늘도 감동하여 행운과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인의 말씀이요 수많은 경전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거스르는 자가 역천자(逆天者)다.

그밖에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희생적인 마음, 용서하는 마음, 매사에 웃는 마음 등등 많이 있다.

진리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재미있으면서도 심오한 이치를 발견하게 된다. 또 그 오묘한 이치와 작용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무릎이 쳐지면서 감탄이 절로 난다. 이러한 신비한 불로장생의 비법을 하나의 기고란을 통하여 완전히 섭렵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다.

우선, 불로장생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그 가능성이 계산적으로 점쳐진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몸으로 익히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오늘날을 당하여 이런 위대한 학문과 최고의 종교(宗教: 최고의 가르침)의 정수(精髓)를 접하게 된 것에 대하여 천지신명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의 불로장생의 비결이란, 결코 어렵고 먼 데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으로부터 차차 익혀 나갈 수 있다는 깨달음, 그런 큰 깨달음을 독자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글쓴이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흔히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하였은즉, 우리는 위대한 도전(불로장생)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다. 하나하나 깨달아 실천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위대한 것들이란, 실은 평범한 가운데 발견하여 일구어낸 것들이다.

이 비법을 읽고서 독자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가운데 불로장생의 기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에 도전해 볼 용기가 생긴다면 좋겠다.

불로장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불로장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것은 그 방면의 길과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간사 모든 것이 알면 쉽고 모르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꿈같은 일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당신은 불로장생의 반은 성취한 것이다. 그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1면 《3. 정역(正易)》에서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밝혀낸 역(易)이다. 주역 계사전에 범삼백육십(凡三百六十) 당기지일(當朞之日)이라 하여 1년 360일에 대한 역이다.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을이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천지가 바로잡힘으로써 건곤(乾坤)의 부모가 제자리를 잡는다. 곤남건북(坤南乾北)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지천태(地天泰)의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조화로운 세상이 열린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괘상이다.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변화 질서에 따라 3남, 3녀가 각기 제 짝을 찾아간다. 소남(小南)인 간(艮)은 정동(正東)으로 소녀(小女)인 태(兌)는 서방(西方)에 위치하여 천지부모(天地父母)의 역할을 대행한다.

천지부모(天地父母)인 곤(坤)과 건(乾)이 종(縱)으로 자리잡아 우주 변화의 바탕인 체(體)가 되고, 소남(小男)과 소녀(小女)인 간(艮)과 태(兌)가 쓰임인 용(用)이 되어 동서 세계의 종교(宗教)와 문명(文明)을 통일(統一)하고 지상에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조화문명(造化文明)을 열게 된다.

정역팔괘(正易八卦)는 우주의 가을의 변화 섭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극(無極)의 십(十)수 하나님이 중앙(中央) 토궁(土宮)에 5와 10으로 자리하여 이기신 하나님(十勝)이 되어 빼앗겼던 우주를 회복하여 원천회복의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완성역(完成易)이다.

결론

희역(羲易)의 복희(伏羲) 8괘(八卦)는 원천회복(原天回復)의 설계도(設計圖)이고, 주역(周易)의 문왕(文王) 8괘(八卦)는 현재의 우주 변화의 원리이고, 정역(正易)의 정역(正易) 8괘(八卦)는 완성된 우주의 원리로 천지공사의 완성도이다.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시작은 희역(羲易)이고 변화와 발전은 주역(周易)이며 결론은 정역(正易)이다. 천지(天地)라 함은 우주(宇宙)를 말한다. 그래서 역(易)이란 우주의 변화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자가 가죽으로 맨 주역(周易)의 책끈이 3번 떨어질 때까지 읽었어도 다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정역이다. 공자는 주역(周易)의 시대가 지나면 360궁의 주인이 중앙에 좌정하는 정역의 시대가 온다는 역(易)의 이치를 알지 못했다. 조선시대 김일부 선생이 정역8괘(正易八卦)를 하늘의 계시로 받아서 그려냈을 때 공자가 친히 김일부 선생 눈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어 선생을 무수히 칭찬하고 갔다고 한다.(서울대 이정호 교수 역 "정역" 참조)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년이 360일이었던 지구가 우주의 변화에 의하여 궤도를 수정하여 1년이 365일이 되었으며 앞으로 1년 365일인 이 시대가 끝나고 1년이 360일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성경(聖經)에는 지금부터 5,000년 전(前) 노아 때가 1년이 360일이었으며 노아 홍수 이후에 1년이 365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6,000년 전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의 싸움에서 천신이 지신에게 패하여 지신(地神)에게 우주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이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으로 전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三位一體)가 깨어지며 에덴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낙원(失樂園) 사건이다.

하나님은 마귀(魔鬼)를 멸하고 다시 삼신일체(三神一體)를 회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각 시대를 열어갈 하늘의 사람을 차례로 출현시키게 된다.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 선천(先天)의 복희씨(伏羲氏)와 문왕씨(文王氏), 후천(後天)의 수운(水雲)과 화운(火雲), 중천(中天)의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이 그 사명(使命)을 받은 천사들이다.

그리하여 천(天), 지(地), 인(人), 만물(萬物)의 사상(四象)으로 갈라진 우주를 중천(中天)의 81궁(宮) 금운(金運)에 와서 다시 하나로 회복(回復)하여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眞歸一)을 완성하게 된다. 금운(金運)이 곧 토운(土運)이요 황극(皇極)이며, 정역(正易)이다. 1981년부터 이미 정역시대는 열렸으며 이 세상은 서서히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영생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민족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역시대(正易時代)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먼 미래세에 올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천(中天)의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은 거론도 하지 않고 후천개벽(後天開闢)으로 끝내버리고는 배달국이니, 한배검이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만(一萬) 년이니 하면서 역사 타령이나 하고 있다.

또한 역학(易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와 64괘의 원리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사주(四柱) 명리(命理)와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강일순 선생은 현세에는 아는 이가 없으니 점도 치지 말고 관상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종교인 및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가을의 추수를 맡은 백보좌의 심판자 정역(正易)의 주인공(主人公)이 역사하시는 승리제단(勝利祭壇)에 찾아와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자유율법(自由律法)을 실천하여 영생(永生)의 대복(大福)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희역·주역·정역의 관계
https://youtu.be/6vcdo0eMPYM